

# <사씨남정기> 한문본과 한글본의 비교 분석

- 규장각 소장본과 장서각 소장본을 중심으로

이 지 영\*

## 차 례

- |                           |                  |
|---------------------------|------------------|
| I. 서론                     | 2. 서술자의 태도       |
| II. 대상 텍스트의 선택            | IV. 텍스트의 지향 비교   |
| III. 규장각 소장본과 장서각 소장본의 비교 | V. 표기와 텍스트의 상관관계 |
| 1. 인물형상                   | VI. 결론           |

## I. 서론

조선시대에는 한문과 한글이 공존하면서 글쓰기에서도 문자에 따른 층위가 나타났다. 사대부 남성들이 한문으로 글을 썼던 데 반하여 사대부 여성이나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에서는 한글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한문이 한글에 비해 권위 있고 격식 있는 글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한문과 한글의 공존 양상은 소설에서 보다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흔히 한글소설은 부녀자나 신분이 낮은 남성들이 읽었다고 하지만, 한문으로 문자생활을 하는 사대부 남성들도 한글로 된 소설을 읽었다. 그리고 두 문자간 상호번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한문본과 한글본이 공존하는 작품이 적지 않다.

\* 아주대학교 강의교수

<사씨남정기>도 한문본과 한글본이 공존하고 있다. 김춘택의 <翻譯南征記引>에 의하면 이 작품은 김만중이 한글로 창작하였고, 김춘택이 한문으로 번역하였다.<sup>1)</sup> 현재 남아있는 이본들은 한글본이 한문본보다 더 많지만 이 중 대다수가 <번언남정기>의 번역본이다. 이본의 상황을 실제 독서상황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겠지만, 전승되는 필사본의 상당수가 한문본의 번역이라는 사실은 한문본과 한글본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었던 저간의 사정을 암시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사씨남정기>의 한글본과 한문본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사씨남정기>에 관한 작품론 및 이본연구는 상당한 성과가 축적되어 있지만, 한문본과 한글본의 차이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하다.<sup>2)</sup> 기존 연구는 대개 이본의 전승양상 및 원본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으며, 문자의 차이가 이본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어진 감이 있다.<sup>3)</sup>

1) “記本我西浦先生所作.....然先生之作之以諺 盖欲使閭巷婦女 皆得以諷誦觀感 固亦非偶然者 而顧無以列於諸子 愚嘗病焉 會謫居無事 以文字翻出一通”(이내중, 『사씨남정기』, 태학사, 1999, 221-222쪽)

2) 이내중은 <번언남정기>의 연세대 소장 <백빈주중봉기>와 대조하면서 김춘택이 말하는 역사가의 문체를 ‘직서의 원칙을 준수하여 간결하게 기술하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하였는데, 한글본과 한문본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었다기보다는 <번언남정기>의 특징을 고찰하고 한 것이었다. (사씨남정기 김춘택 한역본 연구, 대동한문학 11, 1999, 95-210쪽) 또한 정출현은 한글과 한문의 표기체제에 따른 차이를 보다 주목하여 한글소설은 ‘지리번쇄’한 문체를 통해서 규방여성의 취향을 반영하고, 한문소설은 소설을 정치적 윤리적 맥락으로 감상하였던 사대부 남성의 취향을 반영하였다고 보았다. 정출현의 이같은 추정은 표기문자의 차이와 독자를 연관시킨 연구라는 점에서 주목되지만, 필사후기나 소설의 서문등을 통한 추론에 그쳐서 정밀한 이본대비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표기문자의 전환에 따른 고전소설 미학의 변이양상 연구』, 『민족문학사연구』~23, 민족문학사학회, 2003)

3) <사씨남정기>의 이본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Bouchez, *Tradition, traduction et interpretation d'un roman coreen, le Namjong ki*, Collège de France, Centre d'études coreennes, Paris, 1984; 이금희, 『사씨남정기 연구』, 반도출판사, 1991. 이들 선행연구에 의해 현재 전승되는 <사씨남정기> 이본의 양상이 밝혀졌다. 부세와 이금희의 연구의 초점은 김만중이 창작한 원본에 가까운 이본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었기에 이본간의 차이에 대한 고찰은 미흡했다. 최근에 이내중은 부세와 이금희가 증시한 몇몇 이본에 관해 고찰을 하여 선행연구의 오

따라서 본고는 <사씨남정기> 이본 중 대표적인 한글본과 한문본을 선택하여 양본을 면밀하게 대조함으로써 한글본과 한문본간의 차이 및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소설을 어떤 문자로 쓰는가 하는 점은 소설의 주제 및 지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소설의 지향에 따라서 문자가 선택되기도 하지만, 문자에 따라서 소설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밝히는 일은 한문과 한글이 공존한 우리의 소설사를 규명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다.

## II. 대상 텍스트의 선택

한글본과 한문본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어떤 텍스트를 선택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씨남정기>의 이본은 조희웅의 목록을 참조할 때 한문본이 76종이고 한글본이 112종이다.<sup>4)</sup> 부세와 이금희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한문본은 크게 세 계열로 나뉜다. 김춘택이 번역하였다는 <번언남정기> 계열이 한문본의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sup>5)</sup>, <번언남정기>와 유사하면서 부분적인 차이를 보이는 계열<sup>6)</sup>과 내용의 차이가 비교적 크며 회장구분 및 회장제목이 없는 연세대 소장 <백빈주중봉기>가 있다.<sup>7)</sup> 한글본은 대부분은 한문본의 再譯本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문본과는 내용이 달라 국문 원본에 가까운 것으로 주장되는 이본들도 있는데 장서각 소장본이나 조동일 소장본이 이에 해당한다.<sup>8)</sup>

---

류를 지적하고 이본간의 친소관계를 좀더 정밀하게 밝힌 바 있는데, 이내중의 연구 또한 원본과의 거리를 중시하였고 이본간의 차이 자체를 중시하지는 않았다(『<사씨남정기>의 주요 이본 고찰』, 『대동한문학』19, 2003.12).

- 4)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목록, 집문당, 1999.
- 5) 부세는 이를 甲類라고 하였고(『남정기 한문본고』, 『백영 정병욱 선생 환갑기념논총』, 신구문화사, 1982, 54-67쪽), 이금희는 이를 한문A계열이라고 하였다(앞의 책).
- 6) 부세는 이를 乙類라고 하였고(같은 글), 이금희를 다시 세분하여 한문B, 한문C라고 하였는데, 이금희도 둘 사이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하였다(앞의 책). 본고에서는 <번언남정기> 계열과 구분하여 한문B계열이라 부른다.
- 7) 부세는 이를 丙類라고 하였고(같은 글), 이금희는 이를 국문원본 계열이라고 하였다(앞의 책).

이들 이본중에서 본고에서 한문본과 한글본의 일반론을 위한 가설을 세우기 위해 선택한 텍스트는 <번언남정기> 계열의 한문본인 규장각 소장본과 장서각 소장본이다. 한문본 중에서는 현존 한문본의 다수를 차지하면서 김춘택이 직접 한문으로 번역한 의도와 방향을 밝힌 <번언남정기> 계열이 대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중에서 규장각 소장본(가람古813.53 G422n)을 선택하였다.<sup>9)</sup> 그리고 한글본으로는 부세가 원본에 가깝다고 주장하였던 장서각 소장본을 한글본의 대표본으로 선택하였다.

한글본의 대표본으로 장서각 소장본을 선택한 데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현재 남아 있는 한글본 중에서 김만중이 창작한 국문 원본이거나 이에 가깝다고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sup>10)</sup> 김춘택의 <법례>를 역으로 해석하여 몇몇 이본이 국문 원본에 가깝다고 주장되기도 하였지만, 확인된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본고에서는 원본에 가까운 것을 찾기보다는 한글본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장서각 소장본을 선택하였다.

장서각 소장본은 부세가 국문 원본에 가까운 이본으로 언급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만만치 않다. 이금희와 이내중은 한문 번역투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금희가 지적한 번역투는 ‘~하여곰’이나 ‘하야 씨’와 같은 문투이고,<sup>11)</sup> 이내중은 ‘어이 뼈 발언허리잇가’를 직역의 예로 들었다. 또한 삼입시문을 서술할 때 음과 해석을 동시에 적어 놓고 있다는 점, ‘굴오디’와 ‘왈’을 혼용

8) 부세는 장서각 소장본을 상대적으로 국문본에 가깝다고 보았으며(『원문 비평의 방법론에 관한 소고』, 『동방학지』 95, 연대 국학연구소, 1997, 153-155쪽) 이금희는 조동일 소장본을 국문원본에 가깝다고 하였다(앞의 책).

9) 이내중은 규장각 소장본을 기준본으로 하여 <번언남정기> 계열 한문본에 대한 교감본을 간행한 바 있다(『사씨남정기』, 태학사, 1999). 본고에서는 이를 참조하되, 인용문은 규장각 소장본대로 표기하도록 한다.

10) 이금희는 <백빈주증봉기>와 조동일 소장본을 국문원본계열로 분류하였지만, 이 중에서 <백빈주증봉기>는 한문본이며, 조동일 소장본은 연세대 소장본 계열의 한문본과 <번언남정기> 계열의 한문본의 합철본임이 밝혀졌다.

11) “님시 스투하야 굴오디 이는 하늘이 첩을(첩으로) 허야곰 공즈를 밧쳐(밧쳐) 기르게 하시미니 첩이 무슴 공이시리잇고(공이 이시리잇고)와 같은 뻑뻑함, ‘죽음을 거두지 아니하여 뼈 오작의 밥이 되게 허다’와 같은 번역투의 문체”라고 하였다(이금희, 『<사씨남정기>의 이본문제』, 『고소설연구』 7집, 1999, 61쪽). 원문 대조 결과 밑줄 부분은 원문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어 괄호 안과 같이 수정하였다.

한다는 점, 문장의 중복과 누락 등을 번역본으로 볼 수 있는 근거로 보았다.<sup>12)</sup>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한문 번역투의 특징은 대부분 한글본만 전해지는 장편대하소설에서도 흔히 나타난다. 따라서 그러한 문체적 특징은 번역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만 볼 수 없다.<sup>13)</sup> 누락이나 중복도 번역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없다. 장편의 한글소설의 경우에는 이러한 누락과 중복이 흔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장서각 소장본에는 김춘택이 삭제하였다고 언급한 범례의 제3항의 내용 즉, “상녕의 고슬이 굿치고 낙포의 구름이 묘연혼지라”의 구절이 있다. 그리고 김춘택이 범례 4항에서 고쳤다고 한 내용 즉, 사씨가 백빈주의 일을 잊고 있었으며, 구할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 채 구하러 가는 내용이 그대로 나타난다.<sup>14)</sup> 적어도 <번언남정기> 계열이나 이와 유사한 한문본 계열의 영향은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sup>15)</sup>

이내중은 장서각 소장본이 연세대 소장본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sup>16)</sup> 장서각 소장본과 연세대 소장본의 관계는 좀더 고찰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한문본 중에서는 연세대본이 장서각본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된다. <번언남정기> 계열의 한문본과 한문B계열 및 연세대 소장본의 내용을 장서각본의 내용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2) 이내중, 『<사씨남정기>의 주요 이본 고찰』, 『대동한문학』 79집, 2003, 384-390쪽.

13) 소설뿐 아니라 조선시대 한글 문장은 반드시 번역이 아니라도 번역투가 나타난다. 이는 문어로서 한글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문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14) “선시의 묘히 사시드려 니룬디 부인이 처음 오실제 날드려 니르사디 내 구고 묘하의 이실제 몽중의 구괴 날드려 니르시디 이후 녹년 스월 망일의 비를 빅빈쥬의 미야 급흔 사름을 구흐라 흐시더라 흐고 니르시디니 오날이 스월 망일이 라 비를 가지고 빅빈쥬의 가 시험호야 보스이다 사시 췌다라 곁오디 스부의 말습이 울타 흐고 드디어 묘희로 더브러 혼가지로 빅빈쥬의 가니”

15) 물론 장서각 소장본에 나타나는 위의 내용이 김춘택의 “번언남정기인”을 의식하여 역으로 원문의 내용을 복원하려는 경향 때문에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김춘택이 삭제한 내용을 복원하려고 했다면 이는 <번언남정기>와는 다른 경향의 이본을 구성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장서각 소장본은 한문본과는 대척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16) 이내중, 앞의 논문, 387쪽의 각주 38.

- 규17): 維嘉靖三十六年 歲次 丁巳某月某日 ..  
 연18): 維嘉靖三十年 歲次 甲子月日 ...  
 하19): 維嘉靖三十六年 歲次 丁巳某月某日 ...  
 장20): 가정 삼십년 세즈 갑주월일의 ...

사씨를 내쫓으면서 유한림이 사당에 고하는 제문이다. <번언남정기> 계열과 한문B 계열에서는 ‘가정 36년 정사년’이라고 하였는데, 연세대본과 장서각본에서는 ‘가정 30년 갑자년’이라고 하였다. 가정36년은 丁巳年이지만, 가정30년은 甲子年이 아닌 신해년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이 두 텍스트의 필사자는 역사적 사실에 무지하거나 무심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오류가 두 이본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두 이본의 저본이 같을 가능성이 높다.<sup>21)</sup>

연세대 소장본과 장서각 소장본은 내용이 다른 부분도 많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장서각 소장본의 내용은 다른 계열의 한문본과도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규: 又此苟生向可眷戀襁褓之物乎 稚兒推授乳母 毅然上轎子 麟兒大哭 曰 夫人何之 吾隨吾母去耳

연: 豈可眷戀於襁褓之一小兒乎 推給麟兒 乘轎子出 麟兒大哭 曰 愿隨夫人而去矣

하: 豈可眷戀於襁褓之兒耶 遂抱與乳母 乘轎而出 麟兒大聲痛哭曰 孃兮孃兮 何去何去 率我而去

- 17) 규장각 소장본. 이하 인용문에서 규장각 소장본은 ‘규’라고 한다.  
 18) 연세대 소장 <백민주중봉기> 이하 연세대 소장본의 인용문에서는 ‘연’이라 한다.  
 19) 하버드 연경본을 말한다. 연경본은 부세와 이금희의 선행연구에서는 검토된 바 없는데,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한문B계열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 인용문에서 ‘하’라고 한다. 연경본은 이상택 편, 『해외 수일본 한국 고소설총서』 4, 태학사, 1998, 5-196쪽.  
 20) 장서각 소장본을 말한다. 이하 인용문에서는 ‘장’이라 한다.  
 21) 이점에 대해서는 이내종도 지적한 바 있다(앞의 논문, 383쪽). 김만중이 창작한 원본에서 이러한 오류가 나타났다고는 생각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들 이본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 잘 모르는 독자들에게 전승되면서 이같은 동일한 오류가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갑자’는 간지의 시작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에 무식한 독자들이 적당히 갖다 붙이지 않았나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장: 엇지 이 강보의 쓰힌 오히를 권년허리오 만는 내 드르니 깃드리는 곳  
이 기울면 온전한 알이 엇다 하니 내 이제 보전치 못하니 네 장너 이 집의  
잇실 줄 엇지 괴필허리오 인허야 닌으를 밀치고 교즈의 오르니 닌으 크게  
올며 조츠 가기를 원허거늘

사씨가 집에서 쫓겨나는 장면이다. 한문본의 세 텍스트는 표현상의 차이를 보이면서도 전반적으로 내용이 유사한데, 장서각 소장본은 다른 이본과는 내용이 확연히 다르다. 이는 장서각 소장본이 한문으로 서술된 이본과는 다른 변이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암시한다.

고전소설은 전반적으로 한문본에 비해서 한글본에서 변이가 심하게 나타난다. 한글본 중에서도 한문본을 직역한 경우는 변이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한문본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변이는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창선감의록>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창선감의록>의 국문본 가운데 필사후기를 통해서 번역임이 분명히 확인되는 이본은 내용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서문이나 회장제목 및 회장구분이 생략되는 등 한문본과 거리가 먼 국문본일수록 변이의 정도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sup>22)</sup> 이러한 양상이 <사씨남정기>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장서각 소장본은 내용뿐 아니라 형식면에서도 회장이나 회장제목이 없다는 점에서도 연세대본을 제외한 다른 한문본과는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장서각 소장은 한문본과 다른 성격의 이본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적어도 현재로서는 국문 원본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은 이본이라고 보았다.

### Ⅲ. 규장각 소장본과 장서각 소장본의 비교

#### 1. 인물 형상

인물 형상의 측면에서 양본의 차이는 이미 김춘택이 범례에서 짐작할 수 있

22) 줄고, 『<창선감의록>의 이본변이양상과 독자층의 상관관계』, 서울대 박사논문, 2003 참조.

다. 김춘택은 범례의 4항에서 사씨가 백빈주의 일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누구인지도 모른 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은 경솔하다고 하였다.<sup>23)</sup> 규장각 소장본에는 김춘택의 이러한 견해가 반영되어 사씨가 백빈주의 일을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구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 망설이다가 꿈속의 계시를 받은 다음에야 묘희 및女童과 함께 백빈주로 가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사씨의 현숙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하겠다.

사씨를 현숙한 인물로 서술하고자 한 김춘택의 의도는 다음의 경우에도 감지된다.

규: 靑又性巧黠 每事輒稱翰林意 翰林甚親信之 其言無不從 已而謝夫人頗聞靑事 謂翰林曰 靑非端人 累不容於人家 窮而來此 惟相公察之 翰林曰 吾亦聞之 而直爲其能書代勞耳

장: 동청이 글을 잘 쓸 분 아니라 성되 념미하여 온갖 닐을 한님 뜻의 맞치니 한님이 크게 사랑하더라 동청 드러온 후의 부인이 쇼문을 듯고 종용이 한님다려 닐오더 니 드러니 동청은 단정한 사람이 아니라 간 곳마다 용납지 못한다 하니 상공은 두지 마르소서 한님이 글오더 니 쇼흔 동청의 허물을 드러시나 다만 진위를 아지 못할 뿐 아녀 아직 머뜨는 마는 그 필법을 비려 나의 잇브를 면코져 하미니

동청을 집안에 두는 일을 두고 사씨가 유연수에게 간언하는 장면이다. 규장각 소장본에서는 사씨가 동청이 단정한 사람이 아니어서 여러 번 다른 사람의 집에 용납되지 못하다가 집안에 들어온 사연을 이야기 하면서 그 인물됨을 잘 살펴보라고 하고 있는데, 장서각 소장본에서는 집안에 두지 말라고 강하게 이야기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연세대본에서도 장서각 소장본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sup>24)</sup> 규장각 소장본에서 의도적으로 수정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규장각 소장본에서는 사씨가 가장인 유연수에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현숙

23) “原本謝氏初不知白蘋洲不應如此故改之 又謝氏不知當濟者何人 乘舟而待或涉自輕 故添以妙喜夢一款 此其大者”

24) “董靑非但工於筆 性又伶俐 凡干\*事 皆中翰林之意 翰林大加親信 董靑入來之後 謝氏亦有所聞 從容謂翰林曰 我聞董靑非但不正之人 不容於諸處 而來在云 相公須勿容留以貽後弊 翰林曰 吾亦聞董靑之多言 久矣 非但未知虛實 吾之所留者 只資其筆 欲代我勞而已焉”



한 부인의 도리에서 벗어난다고 보아 고친 것으로 생각된다. 동청에 대한 유연수의 신임도 양본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장서각 소장본에서는 유연수가 동청을 사랑한다고 하였는데, 규장각 소장본에서는 동청을 말을 모두 따른다고 하여 그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서술되었다. 유연수가 동청을 신임하는 정도를 더 강하게 서술하여 사씨가 충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규장각 소장본에서 사씨를 유가적 규범에 맞는 현숙한 부인으로 그리고자 하였다면 사씨와 대조적인 인물인 교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면이 부각시키고 있다

규: 翰林名喬氏所居之室曰百子堂命侍婢臘梅等四人侍之家內人稱之曰喬娘子喬氏聰明辨黠能得翰林意又善事謝夫人家中大小莫不稱之

장: 한님이 교녀 있는 집을 일홈호여 빅즈당이라 호고 시비 등 스인을 정호여 스환케 호니 일가 사름이 다 교녀의 아롭다오를 닐컷더라 교녀 총혜호여 한님의 뜻을 맞치며 진심호야 사부인을 섬기니 한님이 짓거호더라

규장각 소장본에서는 교씨가 ‘聰明辨黠’하다고 하였으며, 장서각 소장본에서는 ‘총혜’하다고 하였다. 참고로 연세대 소장 <백빈주중봉기>에서는 ‘明敏聰慧’라고 하였는데, 규장각 소장본에서만 유독 ‘辨黠’이라고 하여 다소 부정적인 어휘를 사용한 것은 교씨를 부정적인 인물로 형상화하려는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본다. 다음 예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규: 乳母大驚痛哭喬氏亦驚號跳出視之已不可求喬氏大哭心知董青所爲而欲遂行計急告翰林

장: 크게 놀나 울며 교녀고 고히디 교녀 방성디곡호고 전도이 나와 보니 밭서 밋출빈 업는지라 비록 동청의 똥줄 아나 일이 임의 이에 니르렀는지라 홀일 업서 그 계교를 쓰고져 호야 밧비 한림고 고히디

동청은 사씨를 몰아내기 위해서 장주를 죽이자고 하는데 교씨를 차마 못할 것이라고 거절한다. 그러자 동청은 교씨 몰래 납매를 시켜 장주를 죽이게 한다. 위 인용문 가운데 규장각 소장본에서는 사씨가 장주의 죽음이 동청의 시킨 바임을 알고 바로 계략을 쓰고자 하였다고 하였다. 장서각 소장본에서도 내용은

유사하나 위의 짧은 글씨 부분이 더 첨가되었다. 교씨는 이미 죽은 장주를 살릴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이용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기 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빠른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규장각 소장본에서는 이러한 교씨의 판단과정이 생략되었기에 아들의 죽음을 바로 정실을 모함하려는 데 이용하려는 냉혹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교씨에 대한 양본의 다른 시각은 설매가 유한림에게 지난 일을 고백하는 장면에서도 나타난다.

규: 麗詛文字 董太守所書也 使相公得罪遠配 亦喬夫人之事也

장: 글씨 위조하기는 동청의 혼 바오 상공의 죄 님으심도 동청의 혼 바

오

위의 인용문은 유배에서 풀려난 유연수가 도중에 설매를 만나 동청과 교씨의 過惡에 대해서 듣는 장면이다. 규장각 소장본에서는 유연수가 유배가게 된 것이 교씨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장서각 소장본에서는 이를 동청이 꾸민 일이라고 하였다.<sup>25)</sup> 유연수가 유배가게 되는 것은 동청이 주도한 일임에도 규장각 소장본에서 교씨의 소위라 한 까닭은 교씨를 악인으로 규정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악행의 주체를 이처럼 다르게 서술하고 있는 것이 의도적인 것임은 유연수가 백빈주에서 사씨와 상봉한 후에 지난 일을 말하는 대목에서도 확인된다. 규장각 소장본에서는 “又言 喬氏使董青讒己於嚴丞相陷死地”라고 하였는데, 장서각 소장본에서는 “동청이 엄숙(숙)에게 참소하야 죽을 썬히 썬지은 일을 일은디”라고 하여 위의 인용문과 악행의 주체를 지목하는 바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규장각 소장본에서는 교씨를 家亂의 원인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교씨의 인물 형상화가 보다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대목은 다음 예문에서 찾을 수 있다.

25) 이 부분은 장서각 소장본과 연세대 소장본의 내용도 일치하지 않는데, 연세대 소장본에서는 “相公之被謫 亦是董青之與喬氏所爲也”와 같이 동청과 교씨가 함께 한 일이라고 하였다.

규: 自今余主內政 惟賞罰號令在余 爾等尙勉哉

장: 내 이제 너정을 잡아시니 전으로 더브리 갖지 아니홀지라 너희 등  
이 질습과 농스를 힘쓰고 화목하야 죄의 빠지지 말나

사씨가 정당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교씨가 정실이 되어 비복들에게 하는 말이다. 양본은 밑줄 부분이 다른데, 규장각 소장본에서는 교씨가 ‘상벌과 호령이 나에게 있으니 너희들은 더욱 힘써라’라고 하면서 비복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장서각 소장본에서는 ‘길쌈과 농사를 힘쓰고 화목하라’고 하여 정실의 지위에 걸맞는 훈계를 하고 있으며 ‘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한 부분에서도 위협의 의미는 없다. 이어서 비복들이 사씨에게 작별인사를 하겠다고 하는 장면에서도 규장각 소장본에서는 “교씨는 이를 막지 못했다(喬氏不能止之)”고 하였지만, 장서각 소장본에서는 “교네 곶오더 너의 뜻이 후후 정니니 엇지 금흐리요”라고 하여, 규장각 소장본에서 교씨의 부정적인 측면이 조금 강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양본은 사씨와 교씨를 형상화 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규장각 소장본에서는 사씨와 교씨를 선인과 악인으로 대비하려는 경향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씨는 유가적 이념에 맞는 현숙한 부인으로, 교씨는 규범에서 벗어난 악한 인물로 그리려는 의도가 양본의 차이에서 감지된다. 장서각 소장본에서도 물론 선인과 악인으로서 사씨와 교씨의 대립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같은 대립이 규장각 소장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난다.

인물 형상의 차이는 주제에 대한 응집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규장각 소장본에서는 텍스트 전체의 주제의식에 맞도록 등장인물을 세심하게 서술하고 있는 반면에 장서각 소장본에서는 주제에 대한 의식이 규장각 소장본에 비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장서각 소장본에서처럼 비복들을 훈계하는 교씨의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는 덕이 있는 가모의 모습으로 비출 수도 있다. 규장각 소장본에서 이 부분을 수정한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장서각 본의 경향은 장면 자체의 현실성은 강화한다고 볼 수 있다. 규장각 소장본에서처럼 처음 정실이 되어 비복에게 공개적으로 훈시하는 자리에서 ‘너희들의 상벌과 호령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2. 서술자의 태도

규장각 소장본과 장서각 소장본은 서술자의 서술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본을 비교할 때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장서각 소장본에서 서술자의 논평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 예문A

규: 遂斬董靑於市

장: 조정의 엄승이 업스니 누 동청을 구흐리오 동청의 지물이 산갓치 높  
흐나 흐 명을 구치 못흐야 장안 저지 거리의서 버히고

### 예문B

규: 蓋此事 喬氏與李十娘所爲 而喬氏夢煩之說 不過倉卒間 欲掩百子堂姦跡耳 然其妖淫之術 因此發露

장: 디기 교녀의 몽압흐다 니른 바는 창졸의 그 빅즈당의 즈는 일을 괴이  
고져 흐미러니 벽을 허러 목인을 어드미 제 일이 거의 발각흐게 되엿다가  
맞춤니 현발치 못흐니 가히 앓갑도다

예문A는 동청이 몰락하는 장면이다. 엄승이 실각한 뒤에 동청은 냉진의 고 발로 인하여 그동안의 폭정이 드러나서 참형에 처해진다. 규장각 소장본에서는 ‘드디어 동청이 저자에서 목이 잘렸다’고 간결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장서각 소장본에서는 밑줄 부분이 더 서술되었다. 단순한 문장 차이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 차이가 나타난다. 장서각 소장본의 굵은 글씨 부분에서 서술자는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다. 서술자의 말이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독자와 서술자의 거리는 매우 가까워진다. 이는 규장각 소장본에서 동청의 처형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과 대조가 된다. 규장각 소장본에서는 서술자가 담담하게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예문B는 유한림이 술사로 하여금 집안의 기운을 살펴보게 하여 교씨가 묻어 놓은 부정한 인형들을 발견한 일에 대한 서술자의 논평이다. 교씨가 동청과 함께 백자당에서 잠을 자던 중에 숙직 들어갔던 한림이 갑자기 들어오는데, 한림이 교씨에게 정당을 놔 두고 왜 백자당에서 잠을 잤느냐고 묻자, 교씨는 꿈자리가 사나워서 그랬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유한림은 자신도 요즘 잠자리가

편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술사를 불러 집안의 기운을 살펴보게 한다. 이로 인해 유한림은 교씨가 자신을 미혹하기 위해 묻어 놓은 인형을 발견하게 되고 이로써 전날 사씨의 소위이라 믿었던 것도 다른 사람의 소행이 아니었나 의심하게 된다. 이 부분은 양본 모두에서 서술자의 목소리가 노출되고 있는데, 규장각 소장본에서는 서술자가 상황을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는 반면 장서각 소장본에서는 ‘가히 아깝도다’라고 하는 서술자의 감정적 진술이 보태져 있다. 텍스트의 서사에 대해서 이처럼 감정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역시 독자와 서술자의 거리는 한층 가깝게 느껴진다.

또한 규장각 소장본에서는 서술자가 직접 설명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

규: 請謝氏禮佛 謝氏起 與乳母叉鬢盥洗 上堂禮拜佛像前 舉首視之 悽然下淚 尼姑怪問曰

장: 사시를 청하야 네블흐르 흐거늘 사시 유모와 츠환으로 더브러 분향네 비흔 후의 눈을 드러 보고 문득 눈물을 흘니니 이는 십구년 전의 사시 친 회 글 지어 빅의 관음화상의 손조 뿐 글시라 니피 사시의 눈물 흘니믈 보고 고이히 녀여 곡절을 무른디

사씨는 묘희에게 구조된 뒤에 묘희가 있는 암자에 가서 머무르게 되는데, 그 암자에는 자신이 찬문을 썼던 관음화상이 걸려 있었다. 위의 예문은 바로 사씨가 이를 확인하는 대목이다. 규장각 소장본에서는 사씨가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법당에 올라가서 불상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자 묘희가 그 이유를 묻고 있다. 사씨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바로 묘희의 말에 대한 대답에서 밝혀진다. 그런데 장서각 소장본에서는 짧은 글씨 부분처럼 서술자가 직접 눈물을 흘린 이유를 말해준다. 규장각 소장본에서는 서술자가 예불을 올리는 사씨의 모습을 거리를 두고 제3자의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는 데 반하여, 장서각 소장본에서는 서술자의 전지적 시점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상으로 고찰한 바, 장서각 소장본의 서술자는 규장각 소장본의 서술자에 비해 등장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낼 뿐 만 아니라 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서술하는 경향이 있다. 규장각 소장본에서는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는 부분도 장서각 소장본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는 경우가 많다.<sup>26)</sup> 이 때문에 장서각 소장본의 서술은 구체성을 띄고 있다. 반면에 규

장각 소장본의 서술은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다. 규장각 소장본의 서술자는 독자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서술하지 않는다.

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장서각 소장본의 서술자는 친절한 반면 규장각 소장본의 서술자는 다소 딱딱하다. 독자와 서술자의 거리가 장서각 소장본은 가깝고 규장각 소장본은 먼 것이다. 서술자가 친절하게 많은 정보를 주게 되면 독자의 몰입을 유도하기 쉽다. 반면 규장각 소장본의 객관적 서술은 독자들이 텍스트에 몰입하기 보다는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도록 한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규장각 소장본의 이념적 성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규장각 소장본에서는 이야기 자체의 서사적 흥미 보다는 등장인물에 대한 도덕적 포폼이 보다 중시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 IV. 텍스트의 지향 비교

앞서 살펴본 양본의 차이는 근본적으로는 두 이본이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규장각 소장본에서는 인물을 이념의 기준에 따라 나누어 각기 다르게 형상화하고 있었으며, 객관적인 서술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바로 김춘택이 범례에서 언급했던 ‘史家文體’와 관련이 있다.<sup>27)</sup> 역사가는 대상에 대해 거리를 두고 포폼한다. 그러면서도 되도록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자 한다. 규장각 소장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서술상의 특징은 바로 사가문체를 지향하는 김춘택의 의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규장각 소장본에서의 이같은 지향은 허구이면서도 ‘史實’에 부합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다음의 예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다음은 사씨와

26) 예를 들어 규장각 소장본에서 “早寡 少師友愛甚篤”라고 간결하게 서술한 부분을 장서각 소장본에서는 “두강이 일찍 죽으니 쇼시 그 누의 일찍 과부되믈 불상이 너겨 우익호는 경이 더욱 등호더라”라고 굵은 글씨 부분이 더 서술되어 있다. 연세대 소장본에서도 “強早死 切愴其妹之寡居 友愛之情 愈往彌篤”라고 서술하여 그 내용이 장서각 소장본과 일치한다.

27) “所譏粗欲爲史家文體 如原本湘靈之瑟聲微矣 洛浦之仙步杳然者等 嫌於小說口氣 故謹刪之”

유한림의 혼인장면이다.

규: 明日 奉棗栗 禮於少師 三日上家廟告祖宗

장: 잇튼날 폐백을 올리고 가묘에 고하는 일을 삼일 뒤에 가묘에 고하니

규장각 소장본에서는 사씨와 유연수가 혼례를 치른 다음날 시부모에게 폐백을 드리고 세 번째 되는 날에 가묘에 고한다고 하였는데, 장서각 소장본에서는 폐백을 올리고 가묘에 고하는 일을 같은 날에 한 것으로 서술되고 있다. 장서각 소장본뿐 아니라 <백빈주중봉기>와 조동일 소장본에서도 장서각 소장본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규장각 소장본의 ‘작가’가 의도적으로 넣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극히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이 부분에서 양본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닌 듯하다. 朱子 <家禮>의 ‘廟見’에서는 ‘三日主人以婦見於祠堂’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밑에는 “예전에는 석달 뒤에 가묘에 고했는데, 너무 멀어서 삼일로 고쳤다(古者三月而廟見今以其太遠改用三日)”는 註解가 있다. 가묘에 고하는 장면에서 ‘三日’이란 말을 넣은 것은 주자의 <가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sup>28)</sup> 규장각 소장본에서는 주자 <가례>에 근거하여 이 대목을 서술하고 있는데, 장서각 소장본에서는 규장각 소장본에서 중시한 <가례>의 대목을 의식하고 있지 않거나 중요시 하지 않은 것이다.

장서각 소장본에서는 규장각 소장본과는 반대로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는 서술도 나타난다. 유연수가 사씨를 쫓아내고 사당에 고하는 제문에서, 장서각 소장본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대로 가정 30년이 신해년임에도 불구하고 갑자년이라고 하였다. 또한 사씨가 동청의 무리로 인해 시아버지의 묘를 떠나면서 집을 치는 대목에서, 규장각 소장본은 “坤變爲歸妹”라고 하여 주역에 나오는 점괘의 이름을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장서각 소장본에서는 “변하여 지미괘 된지라”라고 하여 점괘의 이름을 잘못 서술하였다.<sup>29)</sup>

이와 같이 장서각 소장본은 역사적 사실에서 벗어난 서술을 하고 있지만, 그

28) 김만중이 지은 원래의 텍스트에 ‘三日’이란 말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본다면 장서각 소장본 등에서 이를 탈락시켰다고 할 수 있는데, 장서각 소장본에서 이를 탈락시켰다면 그 이유는 ‘삼일’의 의미가 중요하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번언남정기>에서는 중시되고 장서각 소장본에서는 중시되지 않았다고 보아도 편집성에 대한 두 이본의 차이는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29) <백빈주중봉기>에서도 장서각 소장본과 같이 “變爲地梅卦”라고 하였다.

렇다고 장서각 소장본이 규장각 소장본에 비해 핏진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힘들다.<sup>30)</sup> 그보다는 핏진성의 기제가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규장각 소장본과는 달리 장서각 소장본에서는 상황의 구체성을 중시하고 있는 듯하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대목을 살펴보자.

규: 從者已倦睡矣 翰林忽聞

장: 종지 임의 즈미 코소리 우레 갓흐니 전전흔 중 그 소리에 더욱 심난  
흐야 제문 혼을 날우지 못흐고 므음을 정치 못홀 즈음의 문득 드러니

유한림이 회사정에서 사씨가 쓴 글을 보고 사씨가 죽었을 것이라 생각하여 밤에 제문을 짓는 장면이다. 규장각 소장본에서는 종자들이 피곤하여 잠이 들었다고만 하였는데 장서각 소장본에서는 밑줄 부분처럼 종자들의 코 고는 소리에 제문을 짓지 못하고 심란해하는 유한림이 모습이 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서술되어 있다. 다음 예문에서도 비슷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규: 多買酒肉 兩人相對 大醉昏睡

장: 교네 여러 날 구치흐니 곤흐물 니그지 못흐야 흐거날 냉진이 쥬육을  
갓초야 교녀를 위로흐고 취흐야 쥬점의 누엇더니

교씨와 냉진이 함께 도망치는 장면이다. 규장각 소장본에서는 교씨와 냉진이 도망치다가 술을 많이 마시고 깊이 잠들었다고 하였는데, 장서각 소장본에서는 여러 날 길을 가다가 교씨가 힘들어 하니 냉진이 술과 고기를 사서 먹고 주점에서 쉬게 하였다고 하였다. 규장각 소장본에서는 술에 취한 교씨와 냉진의 방탕한 모습이 보다 부각되어 있는데, 장서각 소장본에서는 여러 날 길을 가기 힘들어 하는 교씨의 현실적인 측면이 서술되어 있다.

이처럼 규장각 소장본에서는 핏진성의 기준이 古典과 規範이다. 김춘택이 원본을 한역할 때에 염두에 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이와 달리 장서각 소장본에서는 고전과 규범의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로 인해 장서각 소장본에서는 역사적 인물이 ‘역사성’을 띠지 못하고 인물의 선악 구분도 다소 모호하게

30) 핏진성은 “verisimilitude”의 번역어이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토도로프, 『핏진성에 대하여』, 『산문의 시학』(재판)(신동욱 역), 문예출판사, 1995 참조.



나타난다. 그러나 규장각 소장본에서의 편집성은 古典으로 인정된 선행 텍스트에 대한 의식일 뿐 구체적 삶에 대한 인식에 근거하고 있지 않은 데 반하여, 장서각 소장본은 고전에 대한 의식이 미약하나, 현실의 구체성은 보다 생생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 V. 표기와 텍스트의 상관관계

규장각 소장본과 장서각 소장본의 이같은 차이는 한문본과 한글본의 일반적 차이로 확대될 수 있을 듯하다. <창선감의록>의 경우에도 한문본과 거리가 먼 한글본일수록 한문본에서 중시하였던 ‘역사적 사실’을 잘못 서술하거나 생략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장서각 소장본에서 나타나는 인물형상화 및 서술상의 특징은 <창선감의록>을 대하소설로 개작한 <화씨충효록>에서 나타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sup>31)</sup> 표기의 차이가 텍스트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표기의 선택이 텍스트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향유층과의 관련부터 살펴보도록 한다. 조선시대에 한문교육은 특정 계층에 한정되었다. 사대부 남성의 경우 한문은 이들을 다른 신분과 구별시켜주는 문화적 표지였다. 사대부라도 여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문을 배우지 않았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여성이 한문을 읽고 쓰는 일이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었다. 따라서 한문텍스트는 한문을 읽고 쓰던 계층의 가치관과 지향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규장각 소장본에서 이념적인 지향이 보다 강하게 나타난 점은 한문 식자층의 가치관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확인하였듯이, 한문본인 규장각 소장본은 한문 글쓰기의 격식과 규범을 따르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한글본인 장서각 소장본이 규장각 소장본에서 중시하는 격식과 규범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은 한문이 아닌 한글로 쓰였

---

31) 예를 들어 정확한 지명과 연호 등의 서술이 한문본의 내용과 크게 달라진 한글본에서는 생략되거나 잘못 서술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줄고, 앞의 논문 참조.

기 때문에 생각된다. 한글로 글을 쓸 때는 한문 글쓰기에서 요구하는 구속력이 크게 약화된다. 김춘택은 한글로 된 <사씨남정기>를 한문으로 번역할 때에 이 작품이 한글로 쓰였기 때문에 제자서의 반열에 오를 수 없다고 하였다.<sup>32)</sup> 한글로 쓴 텍스트는 한문 텍스트만큼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역으로 한글 텍스트는 그만큼 권위나 격식으로부터 자유로웠다고 할 수 있다. 특정 표기로 쓰인 텍스트는 그 표기체제가 기반하고 있는 향유층 및 그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양본의 차이는 향유방식과도 관련이 있을 듯하다. 국문본과 한문본의 향유방식의 차이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sup>33)</sup> 한문과 한글의 표기의 차이가 목독과 낭독의 향유방식의 차이와 관련이 있는지 밝히기 대해서는 서술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점에서 앞서 고찰하였던 양본의 서술방식의 차이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장서각 소장본에서는 서술자의 논평이 규장각 소장본에 비해서 더 많이 나타나며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가 가깝다. 규장각 소장본에서는 서술자가 객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점은 향유방식의 차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소리 내어 소설을 읽고 이를 귀로 듣는 방식으로 소설을 향유한다면 낭독자는 서술자와 동일시 될 수 있다. 낭독의 상황에서 낭독자는 독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함께 이야기를 공유하게 되기에 둘의 거리는 가까워진다. 혼자서 읽거나 눈으로만 읽는다면 서술자=낭독자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독자에 대해서 서술자가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한문 텍스트의 독서방식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만주의 『흙영』의 내용을 참조해 보자. 유만주는 18세기 경 화사족의 한 사람으로 대단히 광범위한 독서편력을 보이고 있다. 그는 소설도 많이 읽었는데, 유만주가 소설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술어는 ‘聽’, ‘聞’과 ‘見’, ‘讀’, ‘閱’ 등이다. 술어에 주의하여 본다면, 유만주는 눈으로 읽는 방식의 독서와 누군가 낭독하는 것을 듣는 독서를 병행하고 있다. 이 때 ‘聽’이나 ‘聞’등의 술어

32) “然先生之作之以言 盖欲使閭巷婦女 皆得以諷誦觀感 固亦非偶然者 而顧無以列於諸子 愚嘗病焉”

33) 정출현은 국문본의 지리변쇄한 서술은 ‘낭독에 적합한 국문소설 특유의 서사문법’으로 목독에 의해 향유되었던 한문소설과 차이를 보인다고 보았다(앞의 논문, 191-193쪽)

를 사용하는 작품은 <차훈기>, <곽분양전기>, <승고흥전기>, <도재상>, <척회전기>, <요화전기>, <남정기> 등이다.<sup>34)</sup> <차훈기>는 종백녀가 읽는 것을 들었다고 했으므로 한글 텍스트일 것으로 생각되며, <남정기>는 ‘내문소설’이라고 하여 한글 텍스트임을 밝혔다. 반대로 ‘見’, ‘讀’, ‘閱’ 등의 술어를 사용하는 작품에는 <요재지이>, <최척전>, <방경각외전>, <수호신전>, <강로전>, <수성지>, <최효몽>, <삼국지통속연의>, <각몽회>, <성세기관>, <옥합기>, <산해경>과 <목천자전> 등이 있는데, 대부분이 중국 소설이거나 우리나라의 한문소설이다. 한글소설은 함께 읽기 혹은 낭독의 방식으로 향유하고 한문소설은 혼자서 읽기 혹은 묵독의 방식으로 향유하였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그런데 유만주는 또한 여성들이 소설을 읽을 때에 눈으로 보아 이해하여 읽어 내려간다고 하였다.<sup>35)</sup> 한글소설이라고 해서 반드시 낭독의 방식으로만 읽지는 않았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리고 한문소설이라고 해서 반드시 눈으로 읽었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단지 한글과 한문의 표기차이를 낭독/묵독의 차이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글소설의 경우에는 혼자서 읽거나 눈으로 읽더라도 독서하는 사람의 의식 안에서 일상의 언어로 전환된다. 때문에 한글로 된 텍스트를 읽을 때에는 실제로 낭독자가 존재하지 않아도 낭독자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일상의 언어와는 거리가 있는 한문소설의 경우에는 독서자의 의식 속에서 낭독자의 존재를 느끼기는 힘들다. 한글 텍스트에서 서술자의 존재가 강하게 나타나는 원인은 이와 같은 표기 자체의 차이에서 기인하지 않는가 한다.

## VI. 결론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사씨남정기>의 대표적인 두 이본이라고 할 수 있는

34) 『흙영』에 관한 기록들은 최자경, 『유만주의 소설관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2000 참조.

35) “然聞之婦女輩言 善讀內文者 十餘行 雖無以一時竝讀 亦足眼下領會 聯啣讀過云”(최자경, 앞의 논문, 117쪽에서 재인용)

규장각 소장본과 장서각 소장본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고, 텍스트가 쓰인 표기체제 및 그 독자층과 상관관계를 추정하였다.

<사씨남정기>는 한글로 창작되어 한문으로 번역되었다. 그리고 한문으로 번역한 것을 다시 한글로 번역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동일한 작품이 한문과 한글의 두 가지 언어로 존재하면서 텍스트의 차이도 나타나고 있는데, 한문본인 규장각 소장본에서는 인물의 이념적 성향이 한글본인 장서각 소장본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장서각 소장본에 비해 서술자가 냉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 점은 양본의 차이가 단지 언어의 차이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규장각 소장본에서 서술자가 자신을 감추고 냉정하게 서술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이나 이념성을 강화한 것은 역사서의 문체를 의식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장서각 소장본은 상대적으로 이념과 역사에 대한 의식이 약하다. 한문본인 규장각 소장본은 한문으로 글을 읽고 쓰던 사대부 남성의 성향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한글본이 장서각 소장본은 한글로 소설을 즐겨 읽던 독자층의 성향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술자의 태도가 다른 점은 향유방식 및 언어 자체의 차이에서도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규장각 소장본보다 장서각 소장본에서 서술자의 개입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한글과 한문의 독서방식의 차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혼자서 눈으로 보기보다는 여럿이서 함께 모여 소설을 읽던 문화가 한글본 서술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글은 일상어에 가깝기 때문에 소설을 눈으로 읽더라도 낭독자의 존재가 의식될 수 밖에 없다고 보았다.

이상으로 <사씨남정기>의 전승과정에서 한글과 한문의 언어의 차이가 텍스트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차이는 단지 <사씨남정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한글본과 한문본이 공존하는 다른 작품들의 경우까지 함께 고찰해야만, 문자의 층위와 텍스트의 관련을 보다 분명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미룬다.

주제어 : 사씨남정기, 한문본 소설, 국문본 소설, 이본 비교, 서술태도, 편집성

## 참고문헌

-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南征記>, 가람古813.53 G422n.  
연세대학교 소장, <南征記>(白蘋洲重逢記), 811.36 김만중 사필.  
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소장 <남정기>, 貴 K4-6789.  
이상택 편, 『해외 수일본 한국 고소설총서』 4, 태학사, 1998.
- 김병권, 「창선감의록의 이중표기화와 독자기대」, 『한국문학논총』 13, 1992.  
부 세, 「<남정기> 한문본고」, 『백영정병욱선생 환갑기념논총』, 신구문화사, 1982.  
\_\_\_\_\_, 「원문 비평의 방법론에 관한 소고」, 『동방학지』 95, 연대 국학연구소, 1997. 43-172쪽.
- 이금희, 『<사씨남정기> 연구』, 반도출판사, 1991.  
\_\_\_\_\_, 「<사씨남정기>의 이본문제」, 『고소설연구』 7집, 1999, 39-61쪽.
- 이내중, <사씨남정기> 김춘택 한역본 연구, 대동한문학 11, 1999, 187-212쪽.  
\_\_\_\_\_, 「<사씨남정기>의 주요 이본 고찰」, 대동한문학 19, 2003.12, 369-397쪽.
- 이지영, 「<창선감의록>의 이본변이양상과 독자층의 상관관계」, 서울대 박사논문, 2003.
- 정출현, 「표기문자의 전환에 따른 고전소설 미학의 변이양상 연구」, 『민족문화사연구』, 민족문화사학회, 2003, 166-200쪽.
-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목록, 집문당, 1999.
- 최자경, 『유만주의 소설관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2000.
- Bouchez, Tradition, traduction et interpretation d'un roman coreen, le Namjong ki, College de France, Centre d'etudes coreennes, Paris, 1984
- 토도로프, 「편집성에 대하여」, 『산문의 시학』(재판), 신동욱 역, 문예출판사, 1995.

<Abstract>

##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wo Variants of Sassi-Namjoengi(사씨남정기)

Yi, Ji-Young

This study is on the difference of Sasi-Namjoengi's two variant. The one written in classical Chinese is possessed by Gyuchang-gak(규장각), and the other in Korean is possessed by Changsoe-gak(장서각).

The variant in classical Chinese was translated by Kim-Chuntack(김춘택). He was the high class gentleman, and the taste and ideology of the class was reflected in it. That is the narrator's slant to Confucianism and calm attitude to implied reader. He thought that the novel should have been written by the style of historian. On the contrary, the variant in Korean is not so ideological. The narrator is intimate with the implied reader. All the more, the two have different verisimilitude. Classical Chinese's is correctness and the Korean's is vividness of scene.

The relation between language and text is inferred as follows. The difference of reader and their culture made two kind of variant. Most of all, I focused on the way of reading. The text in Classical Chinese was read silently, and the text in Korean read loudly. This difference effected the formation of text.

Key Words : Sassi-Namjoengi, Text in Classical Chinese, Text in Korean,  
Implied reader, Narrator's Attitude, Verisimilitude